

## 일자리·무상급식·주택지원...서민보호 역점

광주시·전남도, 시·도교육청 예산안 들여다보니  
광주, 경제분야 예산 올보다 8% 줄어  
전남, FTA 대비 농업 경쟁력 높이기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양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도의회에 넘겨졌다. 의회의 최종 심의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은 확정된 상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과 학교급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특성화된 도서관 건립,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광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조2864억원이다. 올해 예산인 3조279억원보다 8.5%인 2585억원이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27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 투입된 4억3800만원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올해 편성된 106억원보다 2.6배가 증가한 271억2900만원이 반영됐다. 작은도서관 건립·운영비로는 올해 2억4400만원에 비해 9배가 넘는 22억5500만원이 책정됐다.  
국비 80%가 투입되는 서민주택 지원에는 291억20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는 5억원에 그쳤었다. 이밖에 평균 운전연장 이전 100억원, 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확충비 463억5000만원

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선 산업·중소기업 등 경제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8% 가까이 줄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에 대

한 경쟁력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조3503억원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특히 도내 초·중·고 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하기 위한 예산 19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 학교급

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예산(80억)도 편성됐다. 반면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견줘 10% 감액됐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면으로 계속



가격 폭락...해남 배추 폐기  
배추값이 포기당 800원 아래로 급락하면서 16일 해남군 산이면 신흥리 들녘에서 가을배추 산지폐기가 시작됐다. 전남도내 산지폐기는 오는 20일까지 농업 계약재배 물량중 가을배추 45.3ha·가을무 27.7ha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관련기사 2면 /해남=김진수기자 jeans@

### 靑비서관급 광주·전남 출신 전멸

4명 교체인사...문화 1차관에 광영진씨

16일 단행된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중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는 한명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광영진(경북 청도·54)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김석봉(충남 당진·47)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기획비서관에 신용출(경남 마산·46)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발표했다.  
또한, 행정자치비서관에 윤한홍(경남 창원·49) 대통령실장실 선임행정관을, 위기관리비서관

에 최수용(경기 평택·55) 한국해양대 초빙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청와대에서의 지역 인맥이 사실상 전멸됐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지난 10일 청와대의 유일한 지역 출신이었던 박재영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추후 이뤄질 비서관급 인사에서 소통 차원에서라도 지역 인사가 중용되지 않느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역 관계 인사는 "이번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앞두고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한 마디로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도시 디자인·건축 낙제점”

승효상 감독 “상무지구는 기형개발 종합판”

스페인 건축 부시장 제도처령 광주 도시 디자인·건축을 총괄하는 행정 기구를 신설해 도심 디자인과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특성을 살려 광주를 '농촌적 도시' 개념인 '가든시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련기사 5면>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승효상 감독은 지난 14일 광주일보와의 특별 대담에서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

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건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 무주군이 지난 1996년부터 10년 동안 건축가 고 정기용씨에게 30여 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맡겨 성공을 거둔 것처럼 도심 풍경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도시 디자인과 건축을 주제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 승 감독은 “광주의 도시 디자인과 건축은 낙

제 수준이며, 중구난방으로 설계된 상무지구는 잘못된 도시 계획의 종합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번폴리 100개 사업도 책임자를 먼저 정해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형만 키우는 과거의 서구형 도심 설계를 따라가기보다는 인구밀도가 낮아 공간이 풍부한 광주의 특성을 살려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든시티’를 만드자”고 제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알림

현지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 영어 배워요  
뉴질랜드 스쿨링 영어캠프



뉴질랜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정규수업을 함께 받는 정통영어 어학연수인 '2012 뉴질랜드 스쿨링 영어캠프'에 글로벌시대 꿈나무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일보사는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류센터(www.hannew.org.nz)와 공동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22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어학연수는 타사의 해외기숙형 과외연수가 아닌 새 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매일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 현지 학생들의 집에서 매일 숙식하는 홈스테이를 통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면서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것도 이번 연수의 특징입니다. 특히 홈스테이 담당자와 비상연락망을 갖춘 24시간 연수생 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연수비용도 대폭 낮췄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한뉴문화교류센터
- 연수학교 : Howick Intermediate School, Elmpark Primary School 등 6곳
- 신청마감 : 12월 25일
- 문의 : (062)220-0555, 018-693-6604

光州日報社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행복하고 창조도시 광주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 광주의 경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 국내외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변신  
민선 5기 투자유치 148개사(국내 113, 외국 35) 22,174억원  
R&D 특구 지정 (2011. 1), 과학비즈니스벨트 GIST캠퍼스 유치(2011. 5)
- ▶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률: 09. 9월 57.4% → 10. 9월 57.1% → 11. 9월 57.6  
실업률: 09. 9월 3.5% → 10. 9월 2.8% → 11. 9월 2.0% (특광역시 중 최저)
- ▶ 지역산업 발전으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 (전년동기 대비 24.1% 증가)  
2009년 9월 (6,149백만원) → 2010년 9월 (8,143백만원) → 2011년 9월 (10,102백만원)  
※2011년 총 수출액: 140억\$ 이상 예상 (2010년 115억\$)
- ▶ 전국에서 건강 1위 도시로 쾌적한 정주여건 보유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삶의 도시, 출·퇴근시간이 가장 빠른 도시  
연평균 공기중 미세먼지 45μg/m<sup>3</sup>, 이산화질소 함유량 0.02ppm 전국 최저
- ▶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  
2006년 이후 4년 평균 특별·광역시 중 노사분규 최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 CREATIVE GET HAPPY GWANGJU CITY www.gwangju.go.kr